

# 행월

AIR FORCE MONTHLY



1998

통권 제2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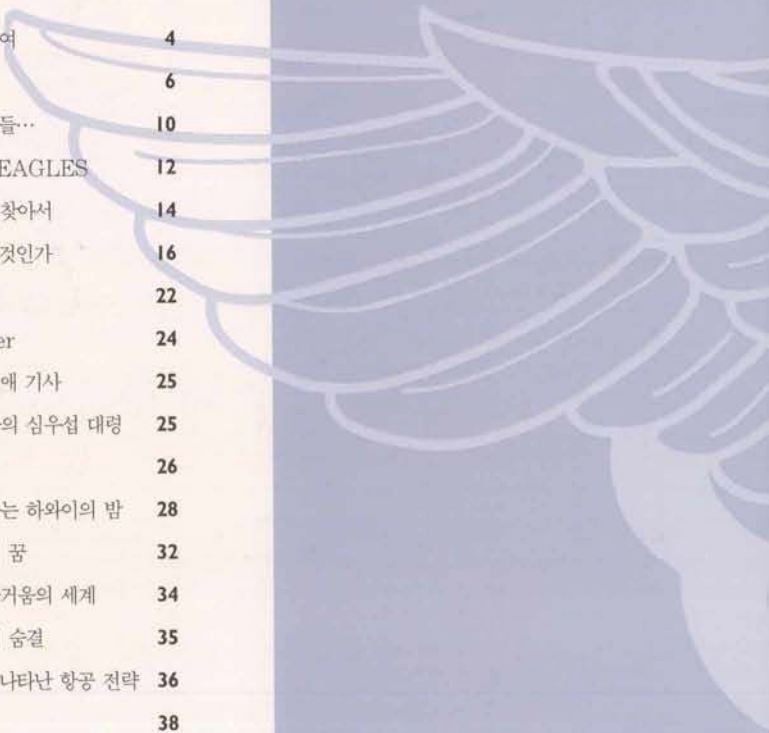
9

공군본부



# C O N T E N T S

축하 메시지	월간 「공군」의 창간에 즈음하여	4
공군은 지금		6
공군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자랑스런 독립군 공군의 후예들...	10
Zoom In	공군 곡예 비행팀 BLACK EAGLES	12
	서울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를 찾아서	14
기획 특집	미래의 전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6
세계로 열린 창	"너무 우수해서 파견됐지요"	22
항공기 열전	CN-235M Super Trooper	24
이달에 만난 사람들	진중 창작전의 큐레이터 김미애 기사	25
	<정예공군인 육성 방안> 연구의 심우섭 대령	25
I love Air Force	나의 야간 비행 참관기	26
마음따라 가는 길	평화의 불꽃놀이 속에 깊어가는 하와이의 밤	28
취미의 세계	작은 모형으로 펼치는 비행의 꿈	32
	서바이벌 게임, 그 짜릿한 즐거움의 세계	34
문화미당	화한뒤편 속에 담긴 옛무인의 숨결	35
	영화 <Air Force One>에 나타난 항공 전략	36
Sky vision 21	정예 공군인 육성 방안	38
정보 비행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라	42
나의 생각·나의 느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IMF시대의 보물	44
	'맛' 속에 배어 있는 남도 '멋'의 비밀	46
마음으로 읽는 글	그리움을 감싸준 손수건 한 장	48
시사 칼럼	햇볕 정책과 잠수정 침투 사건을 보며	49
알립니다		50
포토 에세이	젊은 공군을 본다	51





지휘봉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춘택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또한 유사시에는 일격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의 주체는  
바로 장병 여러분들이며, 그 성패 여부  
역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보화 시대에 능히 적응할 수 있고  
충성과 단결·협동을 생명처럼 여기며  
불굴의 정신력과 대적 필승의 전투 기량을 갖춘  
'정예 공군인 육성'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25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중에서

# 월간 「공군」의 창간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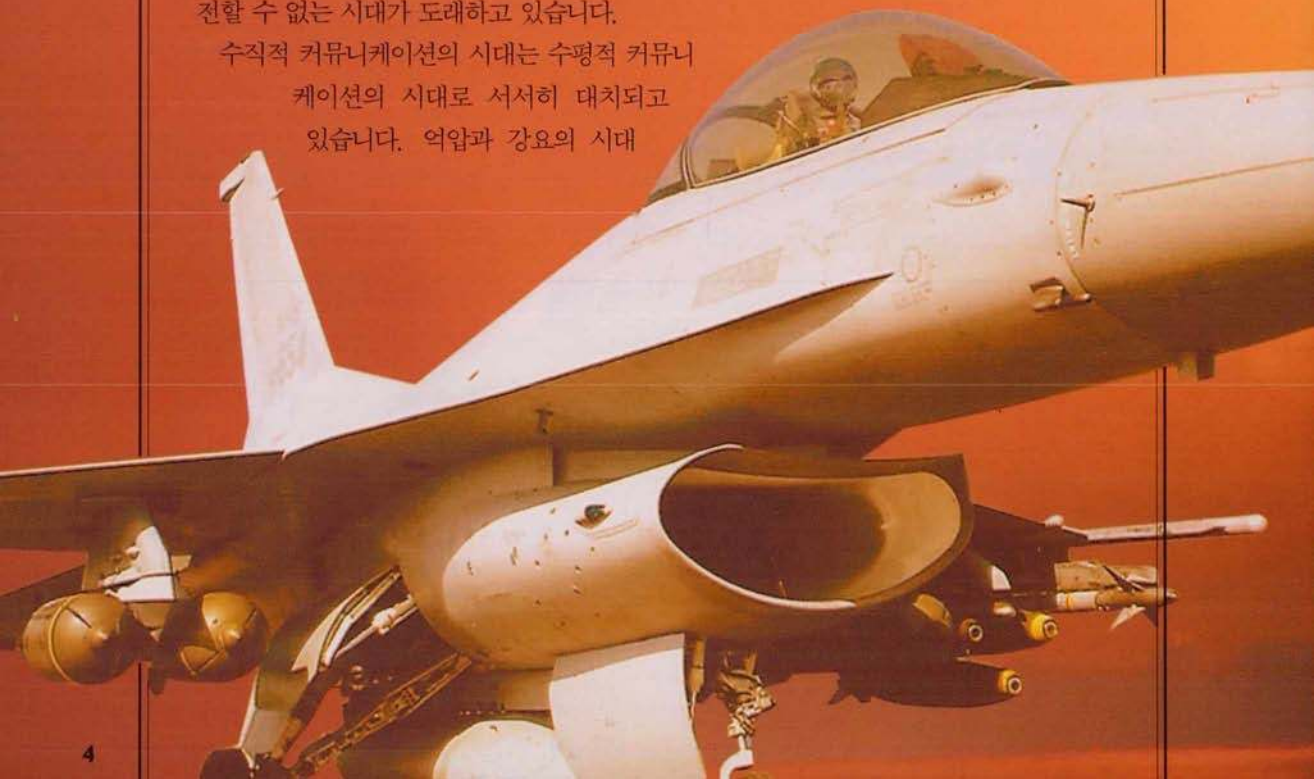
월간 「공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태어나는 월간 「공군」은 그동안 공군에서 발행해 온 주간 「공군」과 계간 「공군」의 한계와 약점을 적절히 보완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부과하리라 예상됩니다. 우선 항공우주시대의 도래는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도전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안겨 주리라 판단됩니다.

21세기는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보의 시대 혹은 홍보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세기가 되면 정보는 산업사회의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경쟁에서 낙후되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홍보의 시대란 곧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마치 국제사회 속에서 홀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직 역시 사회 속에서 고립해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습니다. 억압과 강요의 시대





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대신 대화와 설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군에서 새로이 창간한 월간「공군」은 21세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다가올 항공우주시대와 홍보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혁신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하듯이, 미리 예비하면 인간은 시대를 지배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대가 인간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공군의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예감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대응 조치로서 높게 평가됩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월간「공군」은 우선 우리 공군의 진정한 얼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월간「공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군의 시대사명인 항공우주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월간「공군」은 우리 공군의 명실상부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군대란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린 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월간「공군」과 같은 홍보 매체의 효과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홍보에는 대내홍보와 대외홍보가 있습니다.

대내홍보는 조직 구성원을 향한 홍보를 의미하고,

대외홍보는 국민과 사회를 향한 홍보를 의미합니다. 기본

적으로 대내홍보와 대외홍보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들간의 유기적 연계화가 절실한 과제로서 부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간「공군」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공군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국민의 공군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홍보체계의 수립과 운영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관리 체계의 수립과 운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월간「공군」의 창간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합니다. 월간「공군」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공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월간「공군」은 명실상부한 공군의 얼굴으로서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는 국민의 공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를 함께 보냅니다. ⬆



# AIR FORCE



참모총장 수해지역 부대 순시 (8. 13)



공군본부 장병들은 충남 당진군 송학면 일대에서 수해 피해복구 지원 작업을 하였다 (8. 12)



3훈비 236대대 6만 시간 비행 무사고 시상식이 참모총장 임석하에 실시되었다 (7. 23)

# 05



서울 에어쇼 기획단과  
정보작전 참모부에서는  
주한 무관단을 초청하여  
서울 에어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 14)



1전비 광주 시립무용단 초청 공연  
(7. 22)



공군사관생도 하계집중훈련이 실시되었다  
(6. 29-7. 17)



2학년 생도들이 항공 적성 함양 훈련중  
행글라이딩을 하는 모습

3학년 생도  
낙하산 강하 훈련



대천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2학년 생도 해양훈련



20전비는 어린이들이 경로 효친 사상과  
올바른 가정 예절을 배울 수 있는  
'98 하계 충·호·예 교실을  
운영하였다 (7. 20~31)



18전비 장병들과 '늘 사랑의 집'  
장애인동들의 기차 여행 (7. 2)



16전비 문경초등학교생 초청 기지 견학  
행사 실시 (7. 20)



30단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Work Shop 개최  
(7.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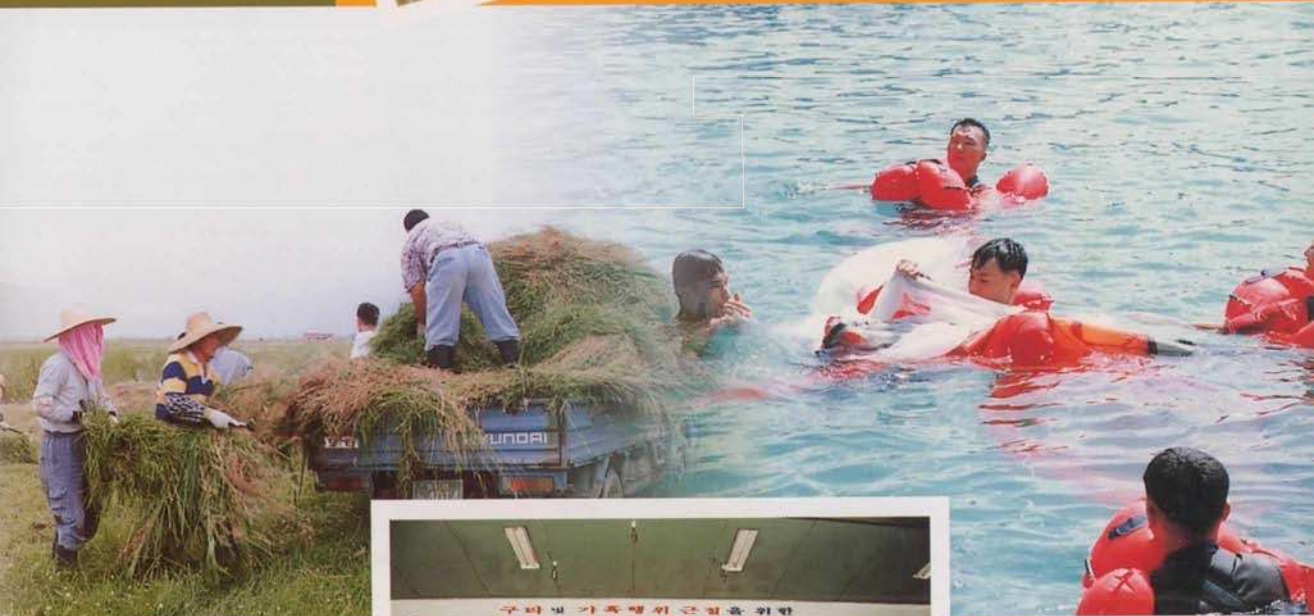


# R FORCE



방포교는 방공포병인의  
상징적 이미지와 전투 기질 배양을 위해  
한마음탐을 건립하였다(7. 16)

19전비 전투 조종사  
해상 생환훈련 (8. 10~15)



5전비는 기지 내에서  
채취된 건조를  
젖소 농가에 사료로  
무상 제공하여  
지역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타 및 가족 행위  
근절을 위한  
단막극 경연대회 우수작품  
비행단 순회 공연 실시 (7월)

# 자랑스런 독립군 공군의 후예들...

공군박물관장 | 김영주



기총조차 없는 연락기를 타고 수류탄으로 적의 탱크와 대항하는 무모함 속에서도 투지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늘, 조국의 푸른 창공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군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경으로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

일제하 1920년 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즈(Willows) 지방에 설립한 독립군 공군비행학교 학생들의 슬로건이었다.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고 국내외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지상군 위주의 소규모 전투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임시정부로서도 더 이상의 비책이 없을 때 도

전선으로 출격하는 F-51 전투기 편대

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비행대 창설 계획이 구상되었다. 비록 군사

적인 목적보다는 독립운동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전단 살포와 연락 업무 등이 주목적이었지만, 지상군 중심의 독립군 활동에 한계를 느낀 임정 간부들 사이에서 공군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주체적인 방책이 해외 비행기지 확보

로 실현된 것이었다.

## 불타는 투혼과 애국심으로 독립군 공군 창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국인 비행학교 설립은 당시의 지역신문(Willows Daily Journal)을 통해 하나의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었으며, 당시 상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과 애국 독지가 김종립 씨의 후원으로 한국인 최초의 비행사 6인(한장호·이용선·이초·오림하·이용근·장병훈)이 미국인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수료한 후 윌로우즈 독립군 공군비행학교(KAC) 비행교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교포들의 눈물어린 성금으로 한국인 최초의 항공기 5대를 구입하여 동체 뒷부분에 태극 마크와 K.A.C. 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새기고 제1기 조종학생 15명을 모집함으로써 역사적인 독립군 공군이 태동하였다. 당시 열악하기 그지없는 미국 이민사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전투 조종사가 되어 기여하여 조국에 목숨을 바치고자 한 자랑스런 독립군 공

군의 후예들, 그들의 불타는 투혼과 애국심이 교육 슬로건 속에 함축되어 있다.

투지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늘, 조국의 푸른 창공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군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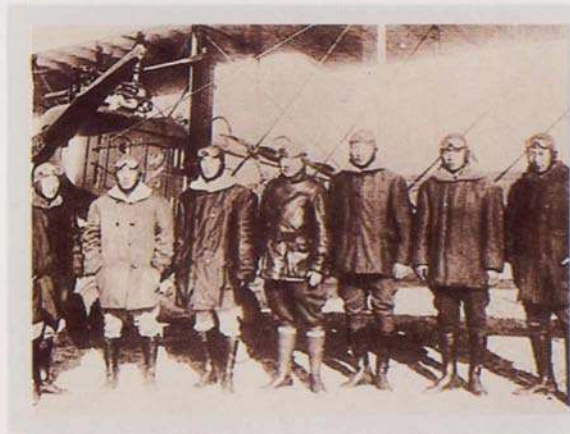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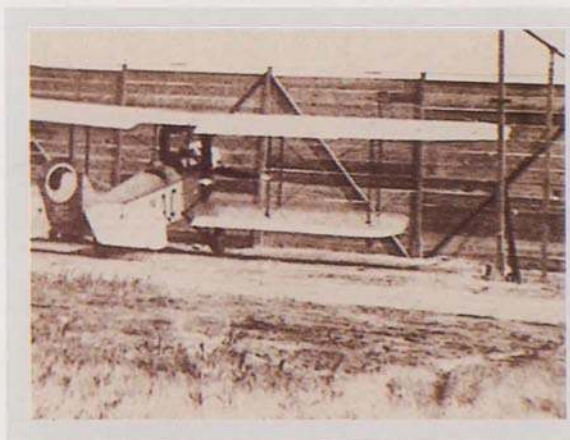
### 선배 공군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1949년 10월 1일 우리 공군이 창설되고 육·해·공 3군의 독립군적 위치가 정립되기까지 공군 창설을 주도해 온 항공인들 역시 “현대전은 입체전이며 공군력의 우세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항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분리·독립해야 하며, 3군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방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독립된 공군의 창설은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잃

었던 조국을 회복한 기쁨과 날개치는 신생 독립국가의 상징으로서 우리 힘으로 조국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우국 충정의 꿈이 스며 있었던 것이다.

창설 과정에서 미국과 육군의 냉담한 태도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였고, 창설 직후에도 단 한 대의 전투기조차 보유하지 못한 채 6·25전쟁에 돌입한 우리 공군이 오늘날의 현대적 정예공군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선배 공군인들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또한 그분들은 전쟁중 수많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총조차 없는 연락기를 타고 수류탄으로 적의 탱크와 대항하는 무모함 속에서도



한국 최초의 조종사 양성소(위)와 한국 최초의 비행가 6인

### 미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 공군인들의 지표

“일류 공중 지휘관이 되라.

일류 신사가 되라.

일류 기술자가 되라.”

초대 공군참모총장 및 항공사관학교장을 역임한 김정렬 장군이 내건 슬로건이다. 국제화·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 일류를 꿈꾸는 최근의 우리 현실을 반세기 전에 예측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던 우리 공군의 전통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부심의 표현이라 하겠다.

공군 문화는 바로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계승·발전해 왔다. 전투기를 주축으로 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정예공군이 고가의 화려한 외형문화를 중시하지 않고, 내면의 시

대정신·신념·희생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전통을 계승해 왔다는 것은 우리 공군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자랑임에 틀림없다.

창군 이래 우리 공군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은 외형적 발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든든한 정신문화의 계승이라 하겠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뭉쳤던 태동기 공군인의 얼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내다보며 21세기 미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 공군인들의 지상 과제요 정신의 지표인 것이다. ⚡



하늘 가슴에 그리는 그림...

# 공군 곡예 비행팀 BLACK EAGLES

## 제8전투비행단 중위 이재용

못 화가들이 화폭 위에 그림을 그린다면, 곡예 비행사들은 드넓고 찬란한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위에는 언제나와 같이 태극기의 적색·청색·흑색·백색 문양을 형상화한 블랙이글스 편대가 날고 있다. 올해 이들 비행의 초점은 바로 '98 서울 국제 에어쇼에 맞춰져 있다.

### 항공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공군의 자존심'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자동차 경주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것과 같이, 항공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에어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블랙이글스 팀이 없었다면 국제 에어쇼는 그야말로 남의 잔치가 되고, 국제 에어쇼를

개최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년전 제1회 서울 국제 에어쇼에서 선보인 바와 같이, 항공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블랙이글스 곡예 비행팀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에어쇼를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우리의 블랙이글스는 그때의 수준에 멈춰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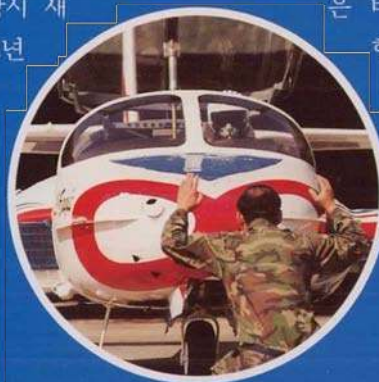
### 역동적인 표현으로 절정에 오른 기량

지난 96년 서울 국제 에어쇼 당시 새로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 수준의 곡예 비행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은 바 있는

블랙이글스는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정상급의 곡예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4기 동시 이륙의 고난도 이륙 방식, 2열 종대 기본 택싱(Taxing) 대형, 기동과 기동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한 루프 기동에 이은 롤 시

범이나 선회 비행에 곧바로 이어지는 다양한 루프 기동 및 응용 기동 등은 세계 어느 곡예 비행팀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들 새롭게 발전된 시범 종목들은 비행의 복합적인 향상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비행의 묘미를 더하



고 있다. 이는 창대 초기부터 이어온 오랜 비행 경험과 미적인 감각, 그리고 역동적 표현 방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팀원 모두의 창조적 구상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블랙이글스, 민과 군을 하나로 엮는 가교 역할

본격적인 출범 이후 단시일 내에 블랙이글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6·25 동안 이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공군 곡예 비행의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공군의 곡예 비행은 1953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F-51 무스탕기 4대로 이루어진 곡예 비행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1962년 10월, F-86 기종 4대로 구성된 '쇼 플라잉' 팀이 본격적인 곡예 비행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1967년에는 새로 도입된 F-5A 기종을 보유한 '블랙이글스'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77년 이후 기종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블랙이글스가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1994년 12월 12일 제8 전투비행단 238대대에 곡예 비행에 적합한 A-37B기를 개조하여 상설 전문 곡예 비행팀으로서 블랙이글스가 재창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 블랙이글스의 역사는 4년이 채 못되지만, 공군 곡예 비행의 역사는 45년여에 이른다고도 볼 수 있다.

재창대 이후 공군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 대회나 행글라이딩 대회와 같은 공군 행사와 광주 비엔날레, 부산 동아시아 대회 등 민간 행사에 연간 40여회의 시범을 펼쳐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 국민의 군대로서 민과 군을 하나로 엮는 가교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전국민의 성원 속에 눈부신 활약 기대

블랙이글스는 작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곡예 비행팀인 영국 레드 애로우즈(Red Arrows) 팀을 우정 방문하여 비행을 같이 하며 상호간 교분을 쌓고, 이들 팀의 선진화된 비행 운영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

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구

체화되어 올해 4월에는 블랙이글스의 홍보용 CD-Rom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 중 하나로 자리잡은 PC통신 천리안의 '블랙이글스' 코너는 항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다루는 전문 사이트로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국내 항공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민간 항공 조종사들도 많은 글과 자료들을 게재하여 그 전문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블랙이글스와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8월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개설될 예정이어서, 국제적인 항공 전문 사이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 50년, 건군 50년'의 뜻깊은 올 국군의 날에 화려한 곡예 비행을 펼쳐보일 블랙이글스가 공군 가족, 나아가 전국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눈부신 활약을 펼쳐보일 것을 기대한다. ⊕

사진 · 소령 이영권



'98 서울 에어쇼를 만드는 사람들

# 서울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를 찾아서

한가지 일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 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98 서울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운영본부 사람들... 이들은 21세기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 경제 부흥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에어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 10월 26일부터 1주일간 최첨단 항공기 전시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현재 공군에서 파견한 장교 15명과 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직원 8명, 그리고 대우중공업 직원 5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층인 이들은 업무별(기획·전시·홍보·비행·의전)로 혼성 편성되어 정부 및 대외기관 협조, 외국

업체 유치 등의 기본 사업과 국내외 홍보, 행사장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을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개막하여 11월 1일(26일~29일 비즈니스 데이, 30일 이후 일반 공개)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155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 전시 및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 '98 SEOUL Air Show

##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물론 이러한 그들의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96 에어쇼 때 72억원의 기본 예산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를 이번에는 40억원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큰 애로 중의 하나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고 국내 경기가 침체된 만큼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홍보 담당 손경수 소령(35세, 공사36기)의 이야기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에어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다. 행사 명칭이 '쇼'라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쇼(?)'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98 서울 에어쇼는 외화 획득 측면에서도 실익을 가져다 줄 호재이기도 하다. 행사장에는 총 560개의 부스와 16개의 살레가 있어 이것들을 참가 업체들에게 임대하게 된다. 이 임대료 수익만도 총 180만불이 넘는 외화 수입이 예상된다. 결코 에어쇼는 비즈니스가 우선인 박람회이지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98 서울 에어쇼를 위해 작년 한해 세계 여러 나라의 에어쇼를 참관하며 서울 에어쇼를 홍보하고 외국 유관 기업들을 유치함은 물론 에어쇼 운영 조직의 특징과 장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 에어쇼가 지역 내 에어쇼 중 가장 세계적이고 안정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준비를 계속 해 왔다.

## '98 서울 에어쇼,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미래를 다질 기회

공동운영본부의 참모장을 맡고 있는 김정기 대령은 에어쇼의 준비를 '종합예술'에 비유한다. "운영·기획·전시·경비·안전·홍보 등이 총망라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군의 우수한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공군이 준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성큼 다가온 21세기, 세계는 분명 인류 최후의 탐험지인 우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 공군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98 서울 에어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글·소령 강성구/사진·중사 심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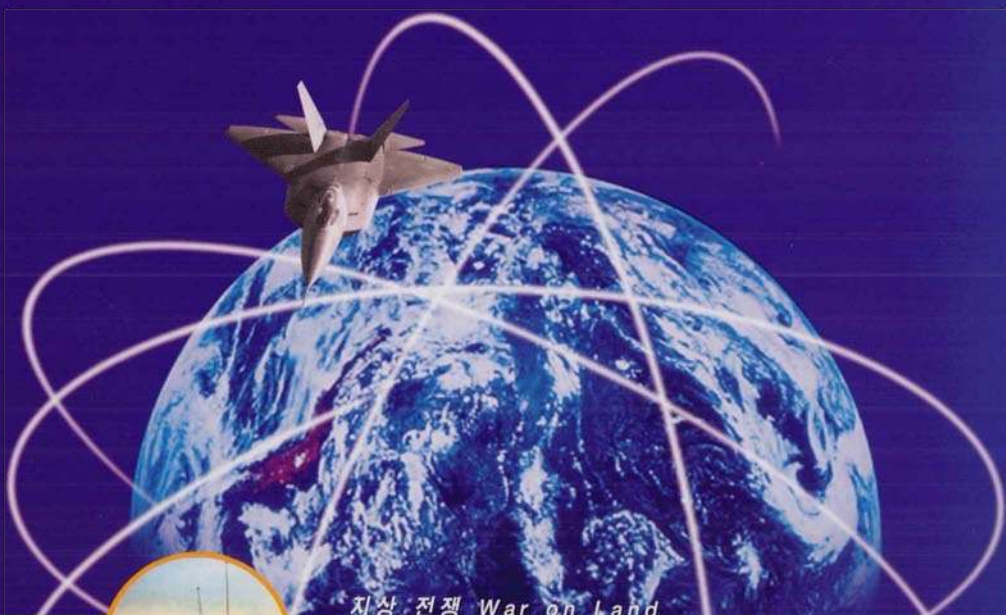
"공군의 우수한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공군이 준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 미래의 전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래전이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각 연구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상전·해상전의 양상과 공군의 전력 증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 양상인 우주전·정보전·병행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 지상 전쟁 War on Land

지상군은 소규모, 스텔스화하여 개인 병사나 전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로 부대를 조직하고, 전술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협조 능력과 정보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재래식 지상 작전은 비선형 전투 공간과 증가하는 스텔스 및 기동성으로 보산된 지상군의 소규모 전투가 용이한 고강도 게릴라전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병사 개개인은 무기·센서·정보전 능력 및 통신 체계를 구비한 기동성을 갖춘 장비로 무장하고, 마이크로 무인기와 로봡(보조자 역할 수행)을 보유하여 정보전 기능이 강화된 기갑보병의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 해상 전쟁 War at Sea

해상전은 지상 및 우주까지 자산을 이용한 광범위한 지역의 지배 능력과 해상 타격을 위한 유인 항공기가 미사일로 대체됨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할 것이다. 위성의 정찰·타격 구조, 무인 항공기 및 지상기지 미사일로 인하여 소규모 해상 병력으로도 국경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해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함모 전투단 위주의 작전은 지상기지 해상 방어 시스템 강화 형태로 변모하고, 성능이 향상된 기뢰와 해상기지 센서, 스텔스 공격 잠수함 통합으로 대부분의 해상 작전이 수면하에서 실시될 것이다. 상륙 작전은 규모가 작아지고 개인 방법이 불투명해지고 대해상 위협이 발달함에 따라 해저나 스텔스 공수를 통해 전략적 거리에서 공격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정보전은 위기 또는 분쟁시 특정 적에 대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s)이다. 정보 작전은 아군의 정보 및 체계는 방어하고, 반면에 적의 정보 및 정보 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군사 작전의 모든 단계 및 범주에서 수행된다. 정보는 더 이상 참모 기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 그 자체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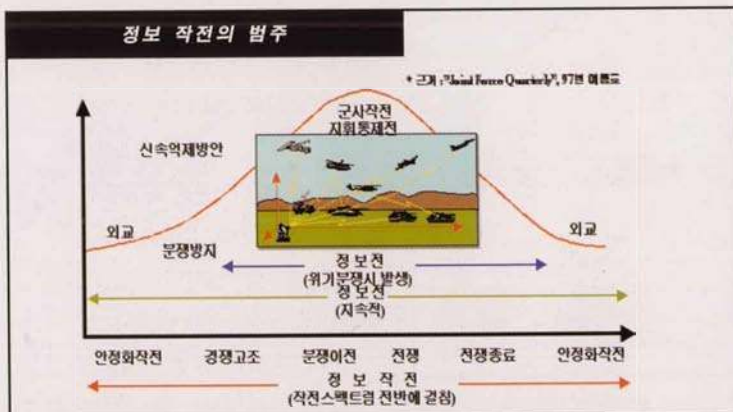
정보전과 정보 작전의 관계는 아래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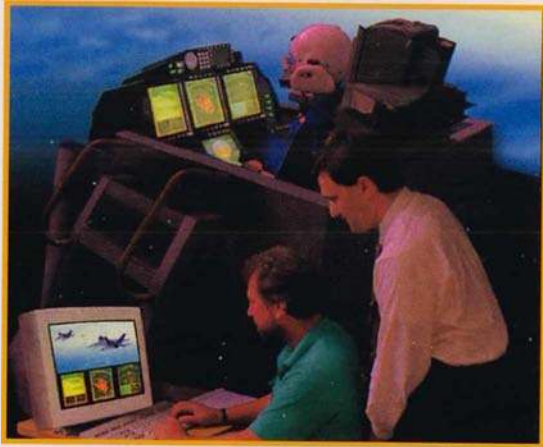
정보전·정보 작전에는 정보 제압과 그 하부 작전인 공세적 정보 제압(Offensive Counterinformation) 및 방어적 정보 제압(Defensive Counterinformation)이 있다. 정보 제압은 정보 전투 공간을 지상·해상·공중 및 우주에 이어 제5차원 전투 공간으로 인식함에 따라 생성된 용어로서 정보 우세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세적 정보 제압은 적의 정보 및 정보 체계를 거부·저하·악해·파괴 및 기만함으로써 정보 환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 작전 활동으로 심리전·전자전·군사 기만·정보 공격(Info Attack)·물리적 공격이 포함된다. 방어적 정보 제압은 적으로부터 아군의 정보 및 정보 체계를 방어하고,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 체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보안 대책(Security Measure),

대기만(Counterdeception), 대정보(Counterintelligence), 대심리전(CounterPSYOP)이 있다. 정보전·정보 작전 역시 다른 작전과 마찬가지로 정보·정찰 및 감시(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기상 지원·정밀 항법 및 좌표 체계·전투 카메라·지휘 통제선 등이 통합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정보전·정보 작전은 공중전·우주전·지상전 및 해상전과 마찬가지로 전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임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보전·정보 작전이 공군 작전의 근간이 아닌 전 공군 작전의 일부로 통합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전·정보 작전은 공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과, 각군마다 고유의 작전 요구가 있으며, 방어하고 활용하고 공유해야 하는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보화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보전·정보 작전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공군의 대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이 정보전·정보 작전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교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정보전·정보 작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의 정의를 검토해야 한다. 지휘관에게 있어 정보는 각 참모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정보 통신 장교에게는 정보 체계 내에서 유통되는 자료를, 그리고 정보 장교에게 있어서는 정보(Intelligence) 생산을 위한 초도 자료, 즉 첩보를 말한다.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없으면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개념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정보전 센터 또는 개념 연구 센터의 창설이나 기존 관련





정보전·정보 작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Commando Solo와 같은 심리전 항공기 도입 등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심리적 수행 능력 구비가 필요하다.

전 미공군 참모총장 로날드 포글만 장군은 "정보 스펙트럼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 땅을 점령하거나 공중을 통제하는 것만큼 오늘날의 전쟁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공군인은 전쟁에 항공기의 출현이 전쟁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잘 알고 있다.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정보 기술의 영향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변혁에서 뒷줄이 아닌 맨 앞줄에 서 있어야 한다.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전자전·정보 지원·정보 체제 운영 지원 및 무기 체계 운영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정보전·정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심리전은



전투발전단 소령 노상기

## 병행전 Parallel Warfare

병행전이란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전쟁 당사자간에 인명과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쟁을 최단시간 내에 종결시킬 수 있는 항공 우주력 위주의 전쟁 수행 방식으로, 각 전쟁 수준(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모든 표적군을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다. 병행전은 최근 미 공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이것이 결코 새로운 전쟁 형태는 아니다. 병행전 개념의 다수의 아이디어는 과거 두해, 미첼 등과 같은 항공 전략 사상가의 전략 폭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병행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걸프전으로, 다국적군은 개전 당일엔 148개 표적을 공격하였으며 그중 50개 표적을 개전초 90분 동안에 공격하였다. 이를



2차 대전 기간중 美8공군이 124개 표적을 1년 동안(1942~1943) 공격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과 초정밀 무기의 발달에서 힘입은 것이다. 1995년 미공군 참모총장 로날드 포글만 장군은 병행전을 설명하면서 "미래전에서는 1시간에 1,500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병행전의 목표는 충격(Shock)을 통한



지휘봉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춘택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또한 유사시에는 일격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의 주체는  
바로 장병 여러분들이며, 그 성패 여부  
역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보화 시대에 능히 적응할 수 있고  
충성과 단결·협동을 생명처럼 여기며  
불굴의 정신력과 대적 필승의 전투 기량을 갖춘  
'정예 공군인 육성'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25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중에서

# 월간 「공군」의 창간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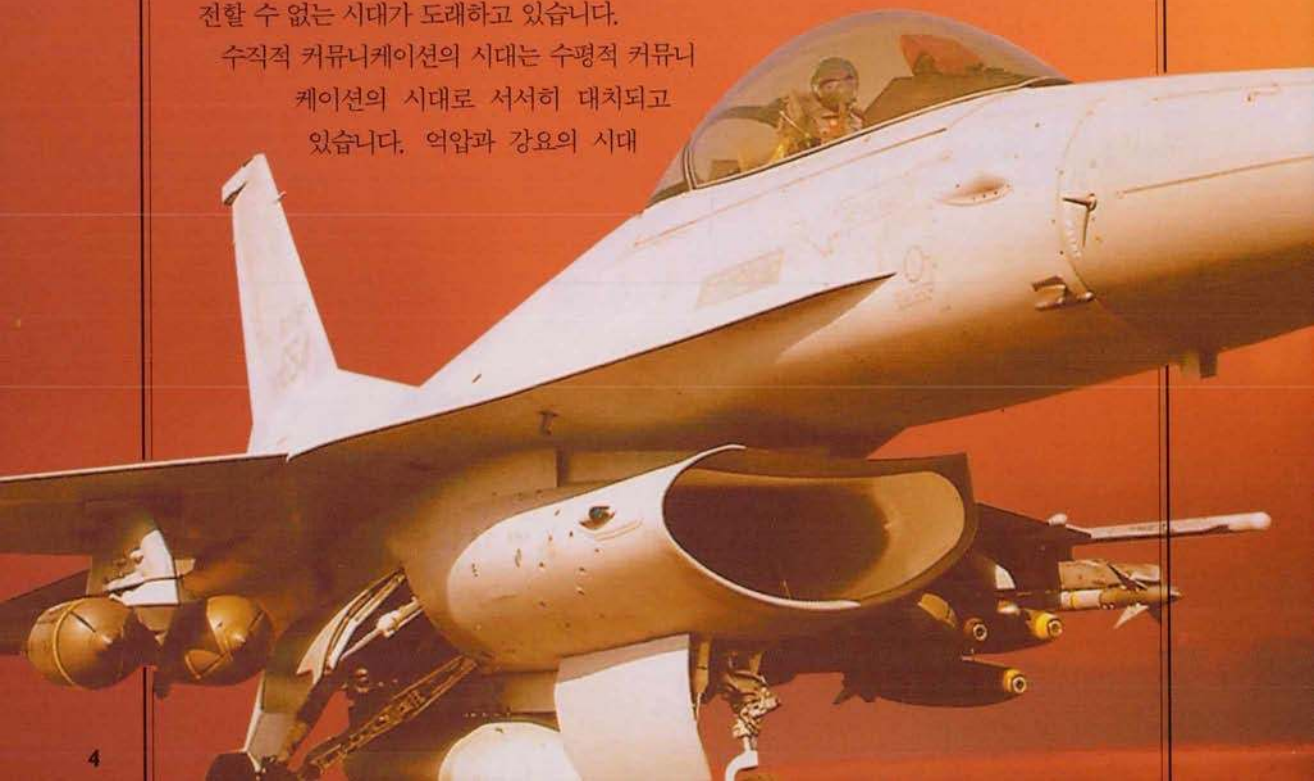
월간 「공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태어나는 월간 「공군」은 그동안 공군에서 발행해 온 주간 「공군」과 계간 「공군」의 한계와 약점을 적절히 보완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부과하리라 예상됩니다. 우선 항공우주시대의 도래는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도전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안겨 주리라 판단됩니다.

21세기는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보의 시대 혹은 홍보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세기가 되면 정보는 산업사회의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경쟁에서 낙후되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홍보의 시대란 곧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마치 국제사회 속에서 홀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직 역시 사회 속에서 고립해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습니다. 억압과 강요의 시대





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대신 대화와 설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군에서 새로이 창간한 월간「공군」은 21세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다가올 항공우주시대와 홍보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혁신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하듯이, 미리 예비하면 인간은 시대를 지배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대가 인간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공군의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예감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대응 조치로서 높게 평가됩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월간「공군」은 우선 우리 공군의 진정한 얼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월간「공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군의 시대사명인 항공우주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월간「공군」은 우리 공군의 명실상부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군대란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린 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월간「공군」과 같은 홍보 매체의 효과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홍보에는 대내홍보와 대외홍보가 있습니다.

대내홍보는 조직 구성원을 향한 홍보를 의미하고,

대외홍보는 국민과 사회를 향한 홍보를 의미합니다. 기본

적으로 대내홍보와 대외홍보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들간의 유기적 연계화가 절실한 과제로서 부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간「공군」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공군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국민의 공군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홍보체계의 수립과 운영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관리 체계의 수립과 운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월간「공군」의 창간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합니다. 월간「공군」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공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월간「공군」은 명실상부한 공군의 얼굴로서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는 국민의 공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를 함께 보냅니다. ↕



# AIR FORCE



참모총장 수해지역 부대 순시 (8. 13)



공군본부 장병들은 충남 당진군 송학면 일대에서 수해 피해복구 지원 작업을 하였다 (8. 12)



3훈비 236대대 6만 시간 비행 무사고 시상식이 참모총장 임석하에 실시되었다 (7. 23)

05



서울 에어쇼 기획단과  
정보작전 참모부에서는  
주한 무관단을 초청하여  
서울 에어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 14)



1전비 광주 시립무용단 초청 공연  
(7. 22)



공군사관생도 하계집중훈련이 실시되었다  
(6. 29-7. 17)

2학년 생도들이 항공 적성 함양 훈련중  
행글라이딩을 하는 모습



3학년 생도  
낙하산 강하 훈련



대천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2학년 생도 해양훈련



20전비는 어린이들이 경로 효친 사상과  
올바른 가정 예절을 배울 수 있는  
'98 하계 총·효·예 교실을  
운영하였다 (7. 20~31)



18전비 장병들과 '늘 사랑의 집'  
장애이동들의 기차 여행 (7. 2)



16전비 문경초등학교 초청 기지 견학  
행사 실시 (7. 20)



30단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Work Shop 개최  
(7. 1~25)

AI



# R FORCE



방포교는 방공포병인의 상징적 이미지와 전투 기질 배양을 위해 한마음탑을 건립하였다 (7. 16)

19전비 전투 조종사 해상 생존훈련 (8. 10~15)



5전비는 기지 내에서 채취된 건조를 짓소 농가에 사료로 무상 제공하여 지역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타 및 가족 행위 근절을 위한 단막극 경연대회 우수작품, 비행단 순회 공연 실시 (7월)

# 자랑스런 독립군 공군의 후예들...

공군박물관장 | 김영주



기총조차 없는 연락기를 타고 수류탄으로 적의 탱크와 대항하는 무모함 속에서도 투지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늘, 조국의 푸른 창공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군인의 정신' 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경으로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

일제하 1920년 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월로우즈(Willows) 지방에 설립한 독립군 공군비행학교 학생들의 슬로건이었다.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고 국내외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지상군 위주의 소규모 전투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임시정부로서도 더 이상의 비책이 없을 때

전선으로 출격하는 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비행대 창설 계획이 구상되었다. 비록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독립운동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 살포와 연락 업무 등이 주목적이었지만, 지상군 중심의 독립군 활동에 한계를 느낀 임정 간부들 사이에서 공군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주체적인 방책이 해외 비행기지 확보

로 실현된 것이었다.

## 불타는 투혼과 애국심으로 독립군 공군 창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국인 비행학교 설립은 당시의 지역신문(Willows Daily Journal)을 통해 하나의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었으며, 당시 상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과 애국 독지가 김종립 씨의 후원으로 한국인 최초의 비행사 6인(한장호·이용선·이초·오림하·이용근·장병훈)이 미국인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수료한 후 월로우즈 독립군 공군비행학교(KAC) 비행교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교포들의 눈물어린 성금으로 한국인 최초의 항공기 5대를 구입하여 동체 뒷부분에 태극 마크와 K. A. C. 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새기고 제1기 조종학생 15명을 모집함으로써 역사적인 독립군 공군이 태동하였다. 당시 열악하기 그지없는 미국 이민사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전투 조종사가 되어 기여이 조국에 목숨을 바치고자 한 자랑스런 독립군 공



군의 후예들, 그들의 불타는 투혼과 애국심이 교육 슬로건 속에 함축되어 있다.

투지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늘, 조국의 푸른 창공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군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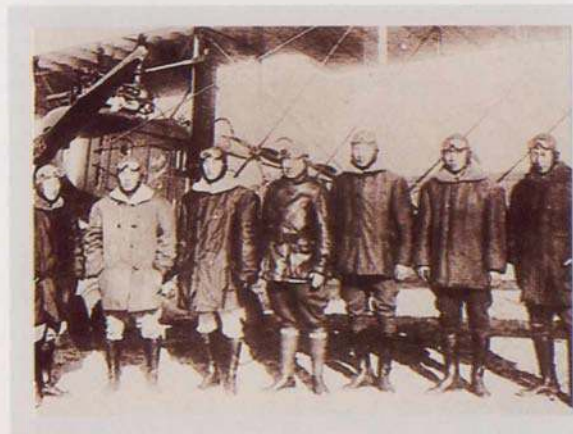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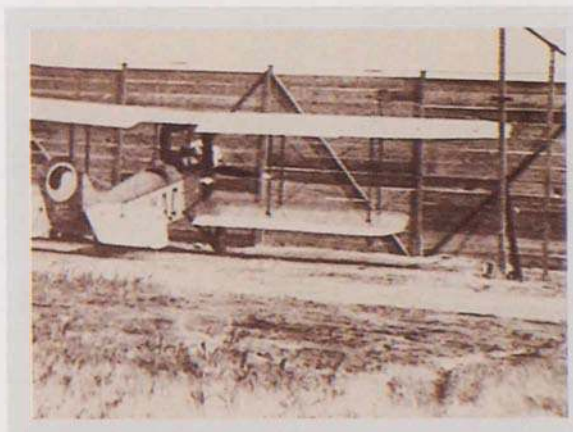
### 선배 공군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1949년 10월 1일 우리 공군이 창설되고 육·해·공 3군의 독립군적 위치가 정립되기까지 공군 창설을 주도해 온 항공인들 역시 “현대전은 입체전이며 공군력의 우세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항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분리·독립해야 하며, 3군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방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독립된 공군의 창설은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잃

었던 조국을 회복한 기쁨과 날개치는 신생 독립국가의 상징으로서 우리 힘으로 조국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우국 충정의 꿈이 스며 있었던 것이다.

창설 과정에서 미국과 육군의 냉담한 태도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였고, 창설 직후에도 단 한 대의 전투기조차 보유하지 못한 채 6·25전쟁에 돌입한 우리 공군이 오늘날의 현대적 정예공군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선배 공군인들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또한 그분들은 전쟁중 수많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총조차 없는 연락기를 타고 수류탄으로 적의 탱크와 대항하는 무모함 속에서도



한국 최초의 조종사 양성소(위)와 한국 최초의 비행기 6인

### 미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 공군인들의 지표

“일류 공중 지휘관이 되라.

일류 신사가 되라.

일류 기술자가 되라.”

초대 공군참모총장 및 항공사관학교장을 역임한 김정렬 장군이 내건 슬로건이다. 국제화·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 일류를 꿈꾸는 최근의 우리 현실을 반세기 전에 예측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던 우리 공군의 전통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부심의 표현이라 하겠다.

공군 문화는 바로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계승·발전해 왔다. 전투기를 주축으로 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정예공군이 고가의 화려한 외형문화를 중시하지 않고, 내면의 시

대정신·신념·희생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전통을 계승해 왔다는 것은 우리 공군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자랑임에 틀림없다.

창군 이래 우리 공군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은 외형적 발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든든한 정신문화의 계승이라 하겠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뭉쳤던 태동기 공군인의 얼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내다보며 21세기 미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 공군인들의 지상 과제요 정신의 지표인 것이다. ➔

하늘 가슴에 그리는 그림...

# 공군 곡예 비행팀 BLACK EAGLES

## 제8전투비행단 중위 **이재용**

못 화가들이 화폭 위에 그림을 그린다면, 곡예 비행사들은 드넓고 찬란한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위에는 언제나와 같이 태극기의 적색·청색·흑색·백색 문양을 형상화한 블랙이글스 편대가 날고 있다. 올해 이들 비행의 초점은 바로 '98 서울 국제 에어쇼에 맞춰져 있다.

### 항공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공군의 자존심'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자동차 경주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것과 같이, 항공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에어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블랙이글스 팀이 없었다면 국제 에어쇼는 그야말로 남의 잔치가 되고, 국제 에어쇼를

개최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년전 제1회 서울 국제 에어쇼에서 선보인 바와 같이, 항공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블랙이글스 곡예 비행팀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에어쇼를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우리의 블랙이글스는 그때의 수준에 멈춰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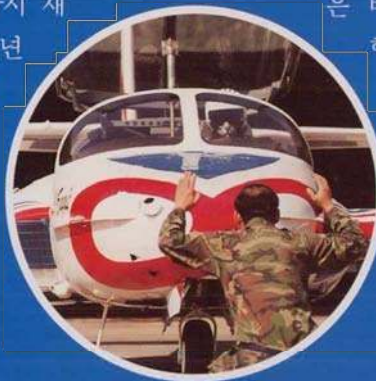
### 역동적인 표현으로 절정에 오른 기량

지난 96년 서울 국제 에어쇼 당시 세로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 수준의 곡예 비행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은 바 있는

블랙이글스는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정상급의 곡예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4기 동시 이륙의 고난도 이륙 방식, 2열 종대 기본 택싱(Taxing) 대형, 기동과 기동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한 루프 기동에 이은 롤 시

범이나 선회 비행에 곧바로 이어지는 다양한 루프 기동 및 응용 기동 등은 세계 어느 곡예 비행팀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들 새롭게 발전된 시범 종목들은 비행의 복합적인 형상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비행의 묘미를 더하



고 있다. 이는 창대 초기부터 이어온 오랜 비행 경험과 미적인 감각, 그리고 역동적 표현 방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팀원 모두의 창조적 구상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블랙이글스, 민과 군을 하나로 엮는 가교 역할

본격적인 출범 이후 단시일 내에 블랙이글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6·25 동안 이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공군 곡예 비행의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공군의 곡예 비행은 1953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F-51 무스탕기 4대로 이루어진 곡예 비행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1962년 10월, F-86 기종 4대로 구성된 '쇼 플라잉' 팀이 본격적인 곡예 비행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1967년에는 새로 도입된 F-5A 기종을 보유한 '블랙이글스'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77년 이후 기종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블랙이글스가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1994년 12월 12일 제8 전투비행단 238대대에 곡예 비행에 적합한 A-37B기를 개조하여 상설 전문 곡예 비행팀으로서 블랙이글스가 재창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 블랙이글스의 역사는 4년이 채 못되지만, 공군 곡예 비행의 역사는 45년여에 이른다고도 볼 수 있다.

재창대 이후 공군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 대회나 행글라이딩 대회와 같은 공군 행사와 광주 비엔날레, 부산 동아시아 대회 등 민간 행사에 연간 40여회의 시범을 펼쳐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 국민의 군대로서 민과 군을 하나로 엮는 가교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전국민의 성원 속에 눈부신 활약기대

블랙이글스는 작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곡예 비행팀인 영국 레드 애로우즈(Red Arrows) 팀을 우정 방문하여 비행을 같이 하며 상호간 교분을 쌓고, 이들 팀의 선진화된 비행 운영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화되어 올해 4월에는 블랙이글스의 홍보용 CD-Rom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 중 하나로 자리잡은 PC통신 천리안의 '블랙이글스' 코너는 항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다루는 전문 사이트로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국내 항공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민간 항공 조종사들도 많은 글과 자료들을 게재하여 그 전문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블랙이글스와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8월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개설될 예정이어서, 국제적인 항공 전문 사이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 50년, 건군 50년'의 뜻깊은 올 국군의 날에 화려한 곡예 비행을 펼쳐보일 블랙이글스가 공군 가족, 나아가 전국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눈부신 활약을 펼쳐보일 것을 기대한다. ⚡

사신·소령 이영권





'98 서울 에어쇼를 만드는 사람들

# 서울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를 찾아서

한가지 일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 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98 서울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운영본부 사람들... 이들은 21세기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 경제 부흥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에어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 10월 26일부터 1주일간 최첨단 항공기 전시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현재 공군에서 파견한 장교 15명과 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직원 8명, 그리고 대우중공업 직원 5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층인 이들은 업무별(기획·전시·홍보·비행·의전)로 혼성 편성되어 정부 및 대외기관 협조, 외국

업체 유치 등의 기본 사업과 국내외 홍보, 행사장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을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개막하여 11월 1일(26일~29일 비즈니스 데이, 30일 이후 일반 공개)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155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 전시 및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 '98 SEOUL Air Show

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큰 애로 중의 하나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고 국내 경기가 침체된 만큼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홍보 담당 손경수 소령(35세, 공사36기)의 이야기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에어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다. 행사 명칭이 '쇼'라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쇼(?)'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기

만불이 넘는 외화 수입이 예상된다. 결코 에어쇼는 비즈니스가 우선인 박람회이지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98 서울 에어쇼를 위해 작년 한해 세계 여러 나라의 에어쇼를 참관하며 서울 에어쇼를 홍보하고 외국 유관 기업들을 유치함은 물론 에어쇼 운영 조직의 특징과 장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 에어쇼가 지역 내 에어쇼 중 가장 세계적이고 안정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준비를 계속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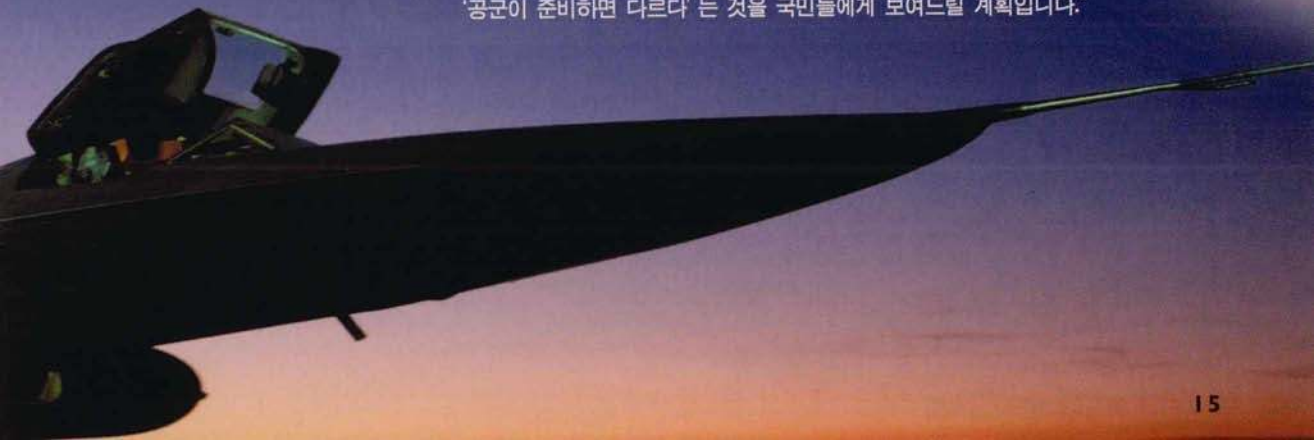
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군의 우수한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공군이 준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성큼 다가온 21세기, 세계는 분명 인류 최후의 탐험지인 우주로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 공군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98 서울 에어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글·소령 강성구/사진·중사 심효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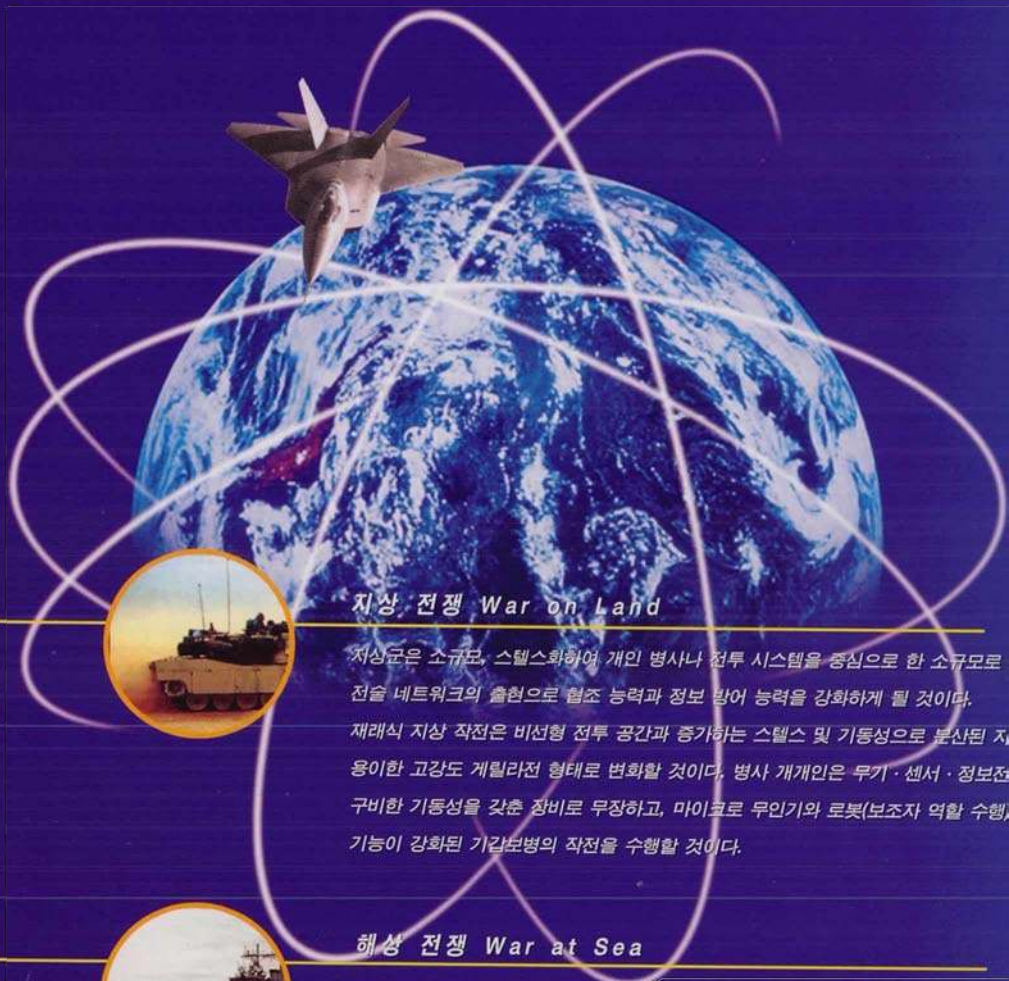
"공군의 우수한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공군이 준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 미래의 전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래전이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각 연구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상전·해상전의 양상과 공군의 전력 증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 양상인 우주전·정보전·병행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 지상 전쟁 War on Land

지상군은 소규모, 스텔스화하여 개인 병사나 전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로 부대를 조직하고, 전술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협조 능력과 정보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재래식 지상 작전은 비선형 전투 공간과 증가하는 스텔스 및 기동성으로 분산된 지상군의 소규모 전투가 용이한 고강도 게릴라전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병사 개개인은 무기·센서·정보전 능력 및 통신 체계를 구비한 기동성을 갖춘 장비로 무장하고, 마이크로 무인기와 로봡(보조자 역할 수행)을 보유하여 정보전 기능이 강화된 기갑보병의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 해상 전쟁 War at Sea

해상전은 지상 및 우주기지 자산을 이용한 광범위한 지역의 지배 능력과 해상 타격을 위한 유인 항공기가 미사일로 대체됨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할 것이다. 위성의 정찰·타격 구조, 무인 항공기 및 지상기지 미사일로 인하여 소규모 해상 병력으로도 국경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해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함모 전투단 위주의 작전은 지상기지 해상 방어 시스템 강화 형태로 변모하고, 성능이 향상된 기뢰와 해상기지 센서, 스텔스 공격 잠수함 통합으로 대부분의 해상 작전이 수면하에서 실시될 것이다. 상륙 작전은 규모가 작아지고 개인 방법이 불투명해지고 대해상 위협이 발달함에 따라 해저나 스텔스 공수를 통해 전략적 거리에서 공격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정보전은 위기 또는 분쟁시 특정 적에 대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s)이다. 정보 작전은 아군의 정보 및 체계는 방어하고, 반면에 적의 정보 및 정보 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군사 작전의 모든 단계 및 범주에서 수행된다. 정보는 더 이상 참모 기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정보전과 정보 작전의 관계는 아래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정보전·정보 작전에는 정보 제압과 그 하부 작전인 공세적 정보 제압(Offensive Counterinformation) 및 방어적 정보 제압(Defensive Counterinformation)이 있다. 정보 제압은 정보 전투 공간을 지상·해상·공중 및 우주에 이어 제5차원 전투 공간으로 인식함에 따라 생성된 용어로서 정보 우세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세적 정보 제압은 적의 정보 및 정보 체계를 거부·저하·악해·파괴 및 기만함으로써 정보 환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 작전 활동으로 심리전·전자전·군사 기만·정보 공격(Info Attack)·물리적 공격이 포함된다. 방어적 정보 제압은 적으로부터 아군의 정보 및 정보 체계를 방어하고,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 체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보안 대책(Security Measure),

대기만(Counterdeception), 대정보(Counterintelligence), 대심리전(CounterPSYOP)이 있다.

정보전·정보 작전 역시 다른 작전과 마찬가지로 정보·정찰 및 감시(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기상 지원·정밀 항법 및 좌표 체계·전투 카메라·지휘 통제선 등이 통합된 지원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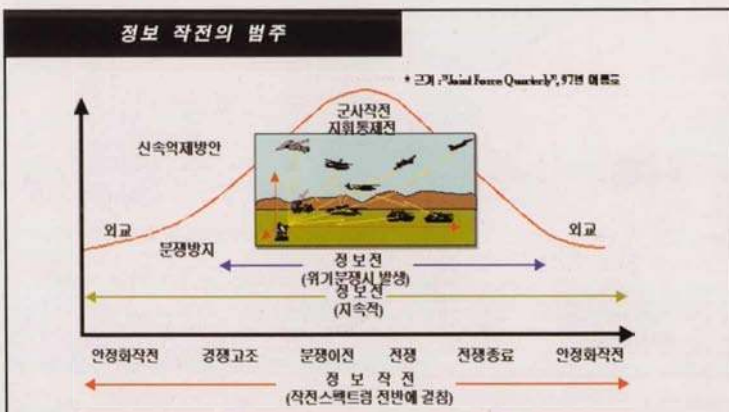
정보전·정보 작전은 공중전·우주전·지상전 및 해상전과 마찬가지로 전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임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보전·정보 작전이 공군 작전의 근간이 아닌 전 공군 작전의 일부로 통합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전·정보 작전은 공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과, 각군마다 고유의 작전 요구가 있으며, 방어하고 활용하고 공유해야 하는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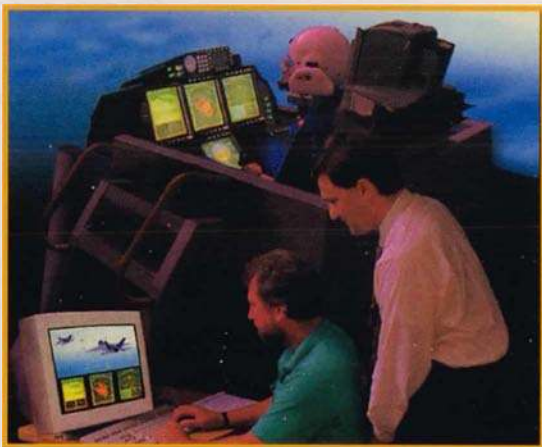
정문화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보전·정보 작전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공군의 대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이 정보전·정보 작전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교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정보전·정보 작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의 정의를 검토해야 한다. 지휘관에게 있어 정보는 각 참모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정보 통신 장교에게는 정보 체계 내에서 유통되는 자료를, 그리고 정보 장교에게 있어서는 정보(Intelligence) 생산을 위한 초도 자료, 즉 첩보를 말한다.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없으면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개념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정보전 센터 또는 개념 연구 센터의 창설이나 기존 관련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전자전·정보 지원·정보 체제 운영 지원 및 무기 체계 운영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정보전·정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심리전은

정보전·정보 작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Commando Solo와 같은 심리전 항공기 도입 등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심리적 수행 능력 구비가 필요하다.

전 미공군 참모총장 로날드 포글만 장군은 “정보 스펙트럼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 땅을 점령하거나 공중을 통제하는 것만큼 오늘날의 전쟁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공군인은 전장에 항공기의 출현이 전쟁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잘 알고 있다.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정보 기술의 영향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변혁에서 뒷줄이 아닌 맨 앞줄에 서 있어야 한다.



전투발전단 소령 노상기

## 병행전 Parallel Warfare

병행전이란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전쟁 당사자간에 인명과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쟁을 최단시간 내에 종결시킬 수 있는 항공 우주력 위주의 전쟁 수행 방식으로, 각 전쟁 수준(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모든 표적군을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다. 병행전은 최근 미 공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이것이 결코 새로운 전쟁 형태는 아니다. 병행전 개념의 다수의 아이디어는 과거 두체, 미첼 등과 같은 항공 전략 사상가의 전략 폭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병행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걸프전으로, 다국적군은 개전 당일에 148개 표적을 공격하였으며 그중 50개 표적을 개전초 90분 동안에 공격하였다. 이를

2차 대전 기간중 美8공군이 124개 표적을 1년 동안(1942~1943) 공격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과 초정밀 무기의 발달에서 힘입은 것이다. 1995년 미공군 참모총장 로날드 포글만 장군은 병행전을 설명하면서 “미래전에서는 1시간에 1,500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병행전의 목표는 충격(Shock)을 통한





지휘봉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준택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또한 유사시에는 일격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의 주체는  
바로 장병 여러분들이며, 그 성패 여부  
역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보화 시대에 능히 적응할 수 있고  
충성과 단결·협동을 생명처럼 여기며  
불굴의 정신력과 대적 필승의 전투 기량을 갖춘  
'정예 공군인 육성'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25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중에서

# 월간 「공군」의 창간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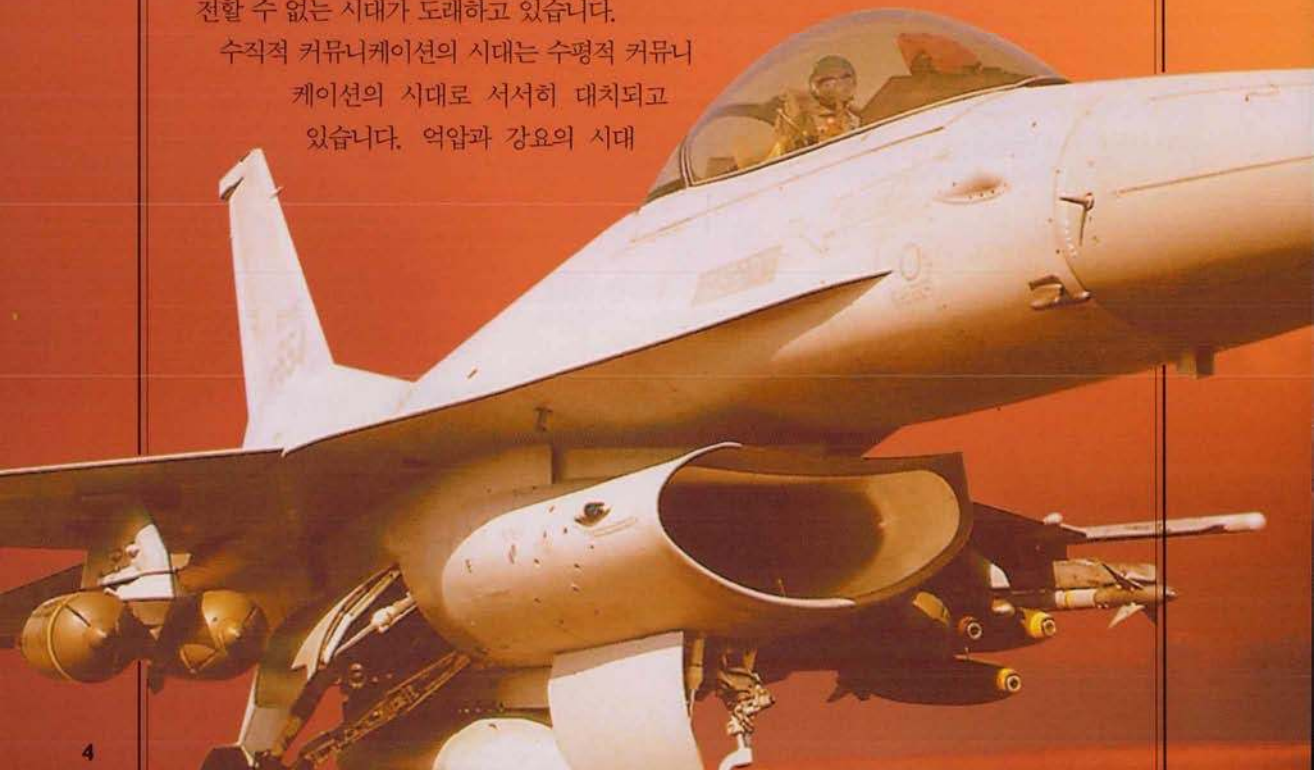
월간 「공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태어나는 월간 「공군」은 그동안 공군에서 발행해 온 주간 「공군」과 계간 「공군」의 한계와 약점을 적절히 보완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부과하리라 예상됩니다. 우선 항공우주시대의 도래는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도전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안겨 주리라 판단됩니다.

21세기는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보의 시대 혹은 홍보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세기가 되면 정보는 산업사회의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경쟁에서 낙후되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홍보의 시대란 곧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마치 국제사회 속에서 홀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직 역시 사회 속에서 고립해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습니다. 억압과 강요의 시대





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대신 대화와 설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군에서 새로이 창간한 월간 「공군」은 21세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다가올 항공우주시대와 홍보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혁신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하듯이, 미리 예비하면 인간은 시대를 지배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대가 인간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공군의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예감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대응 조치로서 높게 평가됩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월간 「공군」은 우선 우리 공군의 진정한 얼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월간 「공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군의 시대사명인 항공우주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월간 「공군」은 우리 공군의 명실상부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군대란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린 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월간 「공군」과 같은 홍보 매체의 효과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홍보에는 대내홍보와 대외홍보가 있습니다.

대내홍보는 조직 구성원을 향한 홍보를 의미하고

대외홍보는 국민과 사회를 향한 홍보를 의미합니다. 기본

적으로 대내홍보와 대외홍보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들간의 유기적 연계화가 절실한 과제로서 부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공군」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공군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국민의 공군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홍보체계의 수립과 운영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관리 체계의 수립과 운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월간 「공군」의 창간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합니다. 월간 「공군」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공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월간 「공군」은 명실상부한 공군의 얼굴으로서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는 국민의 공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를 함께 보냅니다. ☎



# AIR FORCE



참모총장 수해지역 부대 순시 (8. 13)



공군본부 장병들은 충남 당진군 송학면 일대에서 수해 피해복구 지원 작업을 하였다 (8. 12)



3훈비 236대대 6만 시간 비행 무사고 시상식이 참모총장 임석하에 실시되었다 (7. 23)



서울 에어쇼 기획단과  
정보작전 참모부에서는  
주한 무관단을 초청하여  
서울 에어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 14)



1전비 광주 시립무용단 초청 공연  
(7. 22)



공군사관생도 하계집중훈련이 실시되었다  
(6. 29-7. 17)

2학년 생도들이 항공 적성 함양 훈련중  
행글라이딩을 하는 모습



3학년 생도  
낙하산 강하 훈련



대천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2학년 생도 해양훈련



20전비는 어린이들이 경로 효친 사상과  
올바른 가정 예절을 배울 수 있는  
'98 하계 충·호·예 교실을  
운영하였다 (7. 20~31)



18전비 장병들과 '늘 사랑의 집'  
장애아동들의 기차 여행 (7. 2)



16전비 문경초등학교 초청 기지 견학  
행사 실시 (7. 20)



30단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Work Shop 개최  
(7. 1~25)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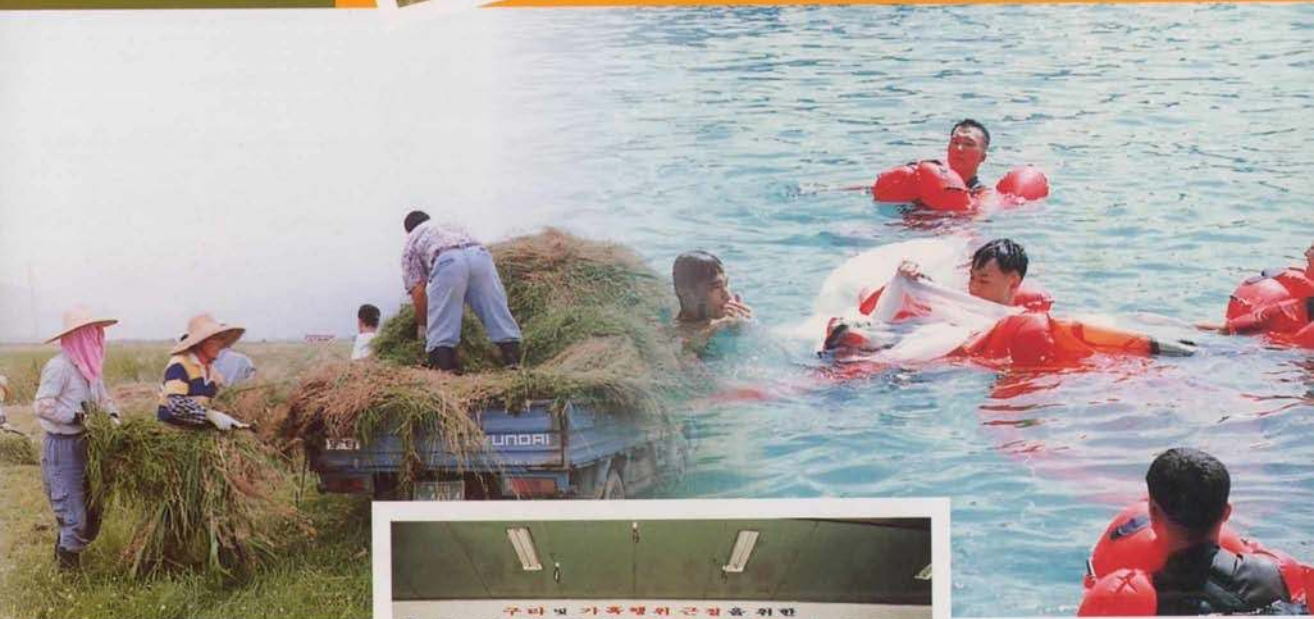


# R FORCE



방포교는 방공포병인의 상징적 이미지와 전투 기질 배양을 위해 한마음탐을 건립하였다 (7. 16)

19전비 전투 조종사 해상 생존훈련 (8. 10~15)



5전비는 기지 내에서 채취된 건조를 찻소 농가에 사료로 무상 제공하여 지역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타 및 가족 행위 근절을 위한 단막극 경연대회 우수작품, 비행단 순회 공연 실시 (7월)

# 자랑스런 독립군 공군의 후예들...

공군박물관장 | 김영주



기총조차 없는 연락기를 타고 수류탄으로 적의 탱크와 대항하는 무모함 속에서도 투지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늘, 조국의 푸른 창공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군인의 정신' 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경으로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

일제하 1920년 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즈(Willows) 지방에 설립한 독립군 공군비행학교 학생들의 슬로건이었다.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고 국내외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지상군 위주의 소규모 전투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임시정부로서도 더 이상의 비책이 없을 때 도

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비행대 창설 계획이 구상되었다. 비록 군사

전선으로 출격하는 F-51 전투기 편대

적인 목적보다는 독립운동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전단 살포와 연락 업무 등이 주목적이었지만, 지상군 중심의 독립군 활동에 한계를 느낀 임정 간부들 사이에서 공군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주체적인 방책이 해외 비행까지 확보

로 실현된 것이었다.

## 불타는 투혼과 애국심으로 독립군 공군 창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국인 비행학교 설립은 당시의 지역신문(Willows Daily Journal)을 통해 하나의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었으며, 당시 상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과 애국 독지가 김종립 씨의 후원으로 한국인 최초의 비행사 6인(한장호·이용선·이초·오림하·이용근·장병훈)이 미국인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수료한 후 윌로우즈 독립군 공군비행학교(KAC) 비행교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교포들의 눈물어린 성금으로 한국인 최초의 항공기 5대를 구입하여 동체 뒷부분에 태극 마크와 K. A. C. 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새기고 제1기 조종학생 15명을 모집함으로써 역사적인 독립군 공군이 태동하였다. 당시 열악하기 그지없는 미국 이민사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전투 조종사가 되어 기여이 조국에 목숨을 바치고자 한 자랑스런 독립군 공

군의 후예들, 그들의 불타는 투혼과 애국심이 교육 슬로건 속에 함축되어 있다.

투지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늘, 조국의 푸른 창공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군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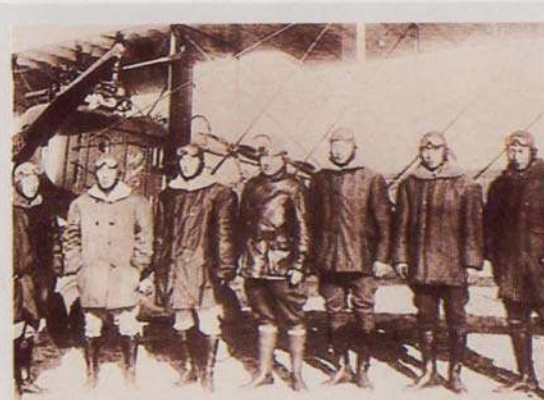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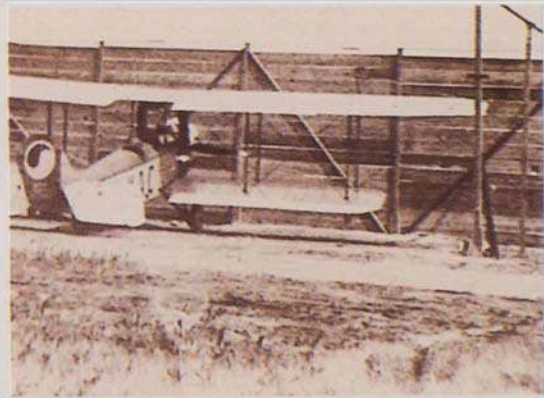
### 선배 공군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1949년 10월 1일 우리 공군이 창설되고 육·해·공 3군의 독립군적 위치가 정립되기까지 공군 창설을 주도해 온 항공인들 역시 "현대전은 입체전이며 공군력의 우세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항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분리·독립해야 하며, 3군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방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독립된 공군의 창설은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잃

었던 조국을 회복한 기쁨과 날개치는 신생 독립국가의 상징으로서 우리 힘으로 조국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우국 충정의 꿈이 스며 있었던 것이다.

창설 과정에서 미국과 육군의 냉담한 태도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였고, 창설 직후에도 단 한 대의 전투기조차 보유하지 못한 채 6·25전쟁에 돌입한 우리 공군이 오늘날의 현대적 정예공군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선배 공군인들의 이무 헤아릴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또한 그분들은 전쟁중 수많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총조차 없는 연락기를 타고 수류탄으로 적의 탱크와 대항하는 무모함 속에서도



한국 최초의 조종사 양성소(위)와 한국 최초의 비행가 6인

### 미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 공군인들의 지표

"일류 공중 지휘관이 되라.

일류 신사가 되라.

일류 기술사가 되라."

초대 공군참모총장 및 항공사관학교장을 역임한 김정렬 장군이 내건 슬로건이다. 국제화·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 일류를 꿈꾸는 최근의 우리 현실을 반세기 전에 예측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던 우리 공군의 전통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부심의 표현이라 하겠다.

공군 문화는 바로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계승·발전해 왔다. 전투기를 주축으로 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정예공군이 고가의 화려한 외형문화를 중시하지 않고, 내면의 시

대정신·신념·희생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전통을 계승해 왔다는 것은 우리 공군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자랑임에 틀림없다.

창군 이래 우리 공군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은 외형적 발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든든한 정신문화의 계승이라 하겠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뭉쳤던 태동기 공군인의 얼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내다보며 21세기 미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 공군인들의 지상 과제요 정신의 지표인 것이다. ⊕



하늘 가슴에 그리는 그림...

# 공군 곡예 비행팀 BLACK EAGLES

## 제8전투비행단 중위 이재용

못 화가들이 화폭 위에 그림을 그린다면, 곡예 비행사들은 드넓고 찬란한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위에는 언제나와 같이 태극기의 적색·청색·흑색·백색 문양을 형상화한 블랙이글스 편대가 날고 있다. 올해 이들 비행의 초점은 바로 '98 서울 국제 에어쇼에 맞춰져 있다.

### 항공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공군의 자존심'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자동차 경주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것과 같이, 항공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에어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블랙이글스 팀이 없었다면 국제 에어쇼는 그야말로 남의 잔치가 되고, 국제 에어쇼를

개최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년전 제1회 서울 국제 에어쇼에서 선보인 바와 같이, 항공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블랙이글스 곡예 비행팀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에어쇼를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우리의 블랙이글스는 그때의 수준에 멈춰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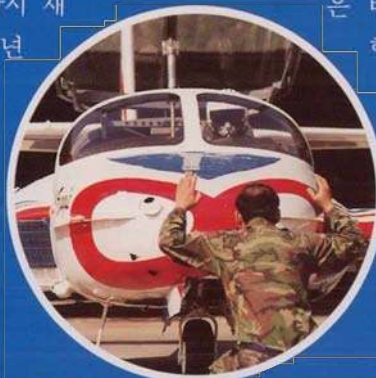
### 역동적인 표현으로 절정에 오른 기량

지난 96년 서울 국제 에어쇼 당시 새로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 수준의 곡예 비행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은 바 있는

블랙이글스는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정상급의 곡예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4기 동시 이륙의 고난도 이륙 방식, 2열 중대 기본 택싱(Taxing) 대형, 기동과 기동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한 루프 기동에 이은 롤 시

범이나 선회 비행에 곧바로 이어지는 다양한 루프 기동 및 응용 기동 등은 세계 어느 곡예 비행팀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들 새롭게 발전된 시범 종목들은 비행의 복합적인 형상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비행의 묘미를 더하



고 있다. 이는 창대 초기부터 이어온 오랜 비행 경험과 미적인 감각, 그리고 역동적 표현 방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팀원 모두의 창조적 구상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블랙이글스, 민과 군을 하나로 묶는 가교 역할

본격적인 출범 이후 단시일 내에 블랙이글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6·25 동란 이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공군 곡예 비행의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공군의 곡예 비행은 1953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F-51 무스탕기 4대로 이루어진 곡예 비행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1962년 10월, F-86 기종 4대로 구성된 '쇼 플라잉' 팀이 본격적인 곡예 비행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1967년에는 새로 도입된 F-5A 기종을 보유한 '블랙이글스'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77년 이후 기종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블랙이글스가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1994년 12월 12일 제8 전투비행단 238대대에 곡예 비행에 적합한 A-37B기를 개조하여 상설 전문 곡예 비행팀으로서 블랙이글스가 재창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 블랙이글스의 역사는 4년이 채 못되지만, 공군 곡예 비행의 역사는 45년여에 이른다고도 볼 수 있다.

재창대 이후 공군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 대회나 행글라이딩 대회와 같은 공군 행사와 광주 비엔날레, 부산 동아시아 대회 등 민간 행사에 연간 40여회의 시범을 펼쳐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 국민의 군대로서 민과 군을 하나로 묶는 가교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전국민의 성원 속에 눈부신 활약기대

블랙이글스는 작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곡예 비행팀인 영국 레드 애로우즈(Red Arrows) 팀을 우정 방문하여 비행을 같이하며 상호간 교분을 쌓고, 이들 팀의 선진화된 비행 운영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노력들이 구체화되어 올해 4월에는 블랙이글스의 홍보용 CD-Rom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 중 하나로 자리잡은 PC통신 천리안의 '블랙이글스' 코너는 항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다루는 전문 사이트로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국내 항공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의 민간 항공 조종사들도 많은 글과 자료들을 게재하여 그 전문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블랙이글스와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8월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개설될 예정이어서, 국제적인 항공 전문 사이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 50년, 건군 50년'의 뜻깊은 올 국군의 날에 화려한 곡예 비행을 펼쳐보일 블랙이글스가 공군 가족, 나아가 전국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눈부신 활약을 펼쳐보일 것을 기대한다. (4)

사진·소령 이영권



'98 서울 에어쇼를 만드는 사람들

# 서울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를 찾아서

한가지 일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 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98 서울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운영본부 사람들... 이들은 21세기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 경제 부흥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에어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 10월 26일부터 1주일간 최첨단 항공기 전시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현재 공군에서 파견한 장교 15명과 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직원 8명, 그리고 대우중공업 직원 5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층인 이들은 업무별(기획·전시·홍보·비행·의전)로 혼성 편성되어 정부 및 대외기관 협조, 외국

업체 유치 등의 기본 사업과 국내외 홍보, 행사장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을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개막하여 11월 1일(26일~29일 비즈니스 데이, 30일 이후 일반 공개)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155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 전시 및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 '98 SEOUL Air Show

##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물론 이러한 그들의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96 에어쇼 때 72억원의 기본 예산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를 이번에는 40억원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큰 애로 중의 하나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고 국내 경기가 침체된 만큼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홍보 담당 손경수 소령(35세, 공사36기)의 이야기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에어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다. 행사 명칭이 '쇼'라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쇼(?)'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98 서울 에어쇼는 외화 획득 측면에서도 실익을 가져다 줄 호재이기도 하다. 행사장에는 총 560개의 부스와 16개의 살레가 있어 이것들을 참가 업체들에게 임대하게 된다. 이 임대료 수익만도 총 180만불이 넘는 외화 수입이 예상된다. 결코 에어쇼는 비즈니스가 우선인 박람회이지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98 서울 에어쇼를 위해 작년 한해 세계 여러 나라의 에어쇼를 참관하며 서울 에어쇼를 홍보하고 외국 유관 기업들을 유치함은 물론 에어쇼 운영 조직의 특징과 장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 에어쇼가 지역 내 에어쇼 중 가장 세계적이고 안정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준비를 계속 해 왔다.

## '98 서울 에어쇼,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미래를 다질 기회

공동운영본부의 참모장을 맡고 있는 김정기 대령은 에어쇼의 준비를 '종합예술'에 비유한다. "운영·기획·전시·경비·안전·홍보 등이 총망라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군의 우수한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공군이 준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성큼 다가온 21세기, 세계는 분명 인류 최후의 탐험지인 우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 공군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98 서울 에어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글·소령 강성구/사진·중사 심효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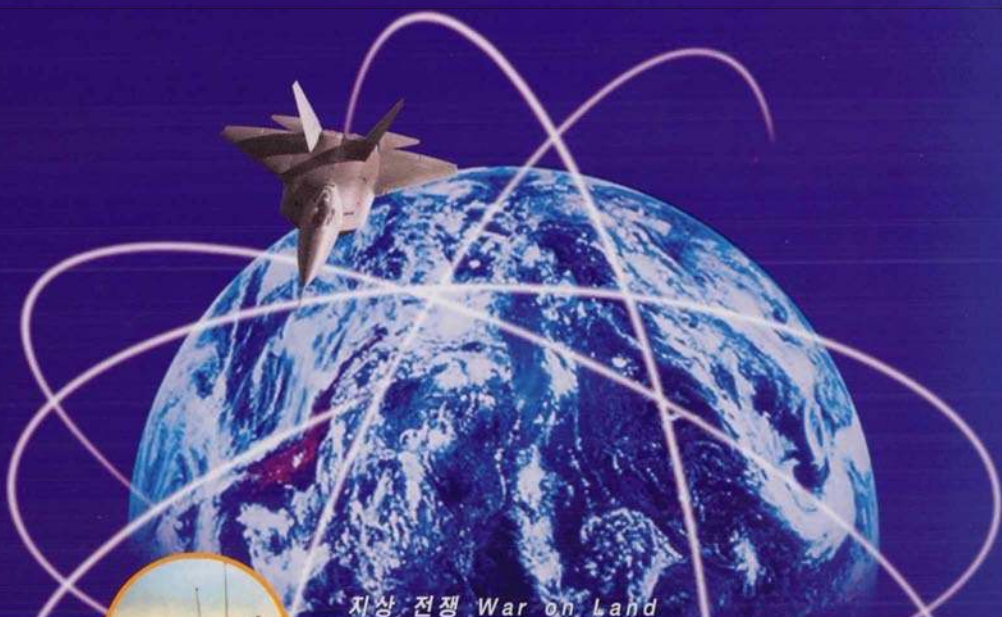
"공군의 우수한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공군이 준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 미래의 전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래전이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각 연구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상전·해상전의 양상과 공군의 전력 증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 양상인 우주전·정보전·병행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 지상 전쟁 War on Land

지상군은 소규모, 스텔스화하여 개인 병사나 전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로 부대를 조직하고, 전술 네트워크의 승현으로 협조 능력과 정보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재래식 지상 작전은 비선형 전투 공간과 증가하는 스텔스 및 기동성으로 분산된 지상군의 소규모 전투가 용이한 고강도 게릴라전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병사 개개인은 무기·센서·정보전 능력 및 통신 체계를 구비한 기동성을 갖춘 장비로 무장하고, 마이크로 무인기와 로봇(보조자 역할 수행)을 보유하여 정보전 기능이 강화된 기갑보병의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 해상 전쟁 War at Sea

해상전은 지상 및 우주기지 자산을 이용한 광범위한 지역의 지배 능력과 해상 타격을 위한 유인 항공기가 미사일로 대체됨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할 것이다. 위성의 정찰-타격 구조, 무인 항공기 및 지상기지 미사일로 인하여 소규모 해상 병력으로도 국경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해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항모 전투단 위주의 작전은 지상기지 해상 방어 시스템 강화 형태로 변모하고, 성능이 향상된 기뢰와 해상기지 센서, 스텔스 공격 잠수함 통합으로 대부분의 해상 작전이 수면하에서 실시될 것이다. 상륙 작전은 규모가 작아지고 개입 방법이 불투명해지고 대해상 위협이 발달함에 따라 해저나 스텔스 공수를 통해 전략적 거리에서 공격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정보전은 위기 또는 분쟁시 특정 적에 대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s)이다. 정보 작전은 아군의 정보 및 체계는 방어하고, 반면에 적의 정보 및 정보 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군사 작전의 모든 단계 및 범주에서 수행된다. 정보는 더 이상 참모 기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정보전과 정보 작전의 관계는 아래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정보전·정보 작전에는 정보 제압과 그 하부 작전인 공세적 정보 제압(Offensive Counterinformation) 및 방어적 정보 제압(Defensive Counterinformation)이 있다. 정보 제압은 정보 전투 공간을 지상·해상·공중 및 우주에 이어 제5차원 전투 공간으로 인식함에 따라 생성된 용어로서 정보 우세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세적 정보 제압은 적의 정보 및 정보 체계를 거부·저하·와해·파괴 및 기만함으로써 정보 환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 작전 활동으로 심리전·전자전·군사 기만·정보 공격(Info Attack)·물리적 공격이 포함된다. 방어적 정보 제압은 적으로부터 아군의 정보 및 정보 체계를 방어하고,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 체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보안 대책(Security Measure),

대기만(Counterdeception), 대정보(Counterintelligence),

대심리전(CounterPSYOP)이 있다.

정보전·정보 작전 역시 다른 작전과 마찬가지로 정보·정찰 및 감시(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기상 지원·정밀 항법 및 좌표 체계·전투 카메라·지휘 통제선 등이 통합된 지원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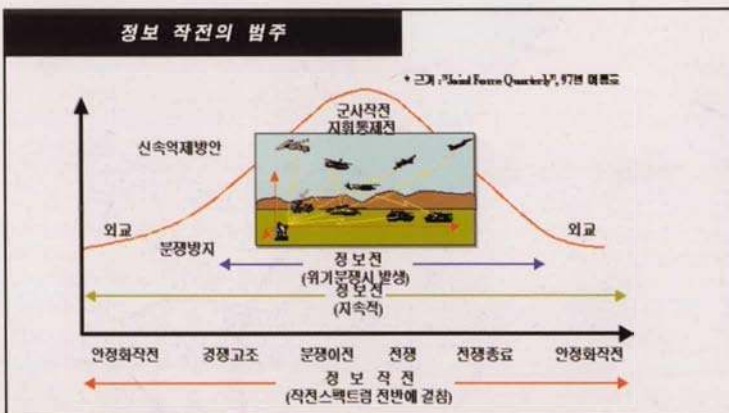
정보전·정보 작전은 공중전·우주전·지상전 및 해상전과 마찬가지로 전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임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보전·정보 작전이 공군 작전의 근간이 아닌 전 공군 작전의 일부로 통합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전·정보 작전은 공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과, 각군마다 고유의 작전 요구가 있으며, 방어하고 활용하고 공유해야 하는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보화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보전·정보 작전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공군의 대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이 정보전·정보 작전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교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정보전·정보 작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의 정의를 검토해야 한다. 지휘관에게 있어 정보는 각 참모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정보 통신 장교에게는 정보 체계 내에서 유통되는 자료를, 그리고 정보 장교에게 있어서는 정보(Intelligence) 생산을 위한 초도 자료, 즉 첩보를 말한다.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없으면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개념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정보전 센터 또는 개념 연구 센터의 창설이나 기존 관련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전자전·정보 지원·정보 체제 운영 지원 및 무기 체계 운영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정보전·정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심리전은

정보전·정보 작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Commando Solo와 같은 심리전 항공기 도입 등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심리적 수행 능력 구비가 필요하다.

전 미공군 참모총장 로날드 포글만 장군은 “정보 스펙트럼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 땅을 점령하거나 공중을 통제하는 것만큼 오늘날의 전쟁에 있어 중요하다.” 고 하였다. 우리 공군인은 전쟁에 항공기의 출현이 전쟁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잘 알고 있다. 정보전·정보 작전에 대한 정보 기술의 영향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변혁에서 뒷줄이 아닌 맨 앞줄에 서 있어야 한다.



전투발전단 소령 노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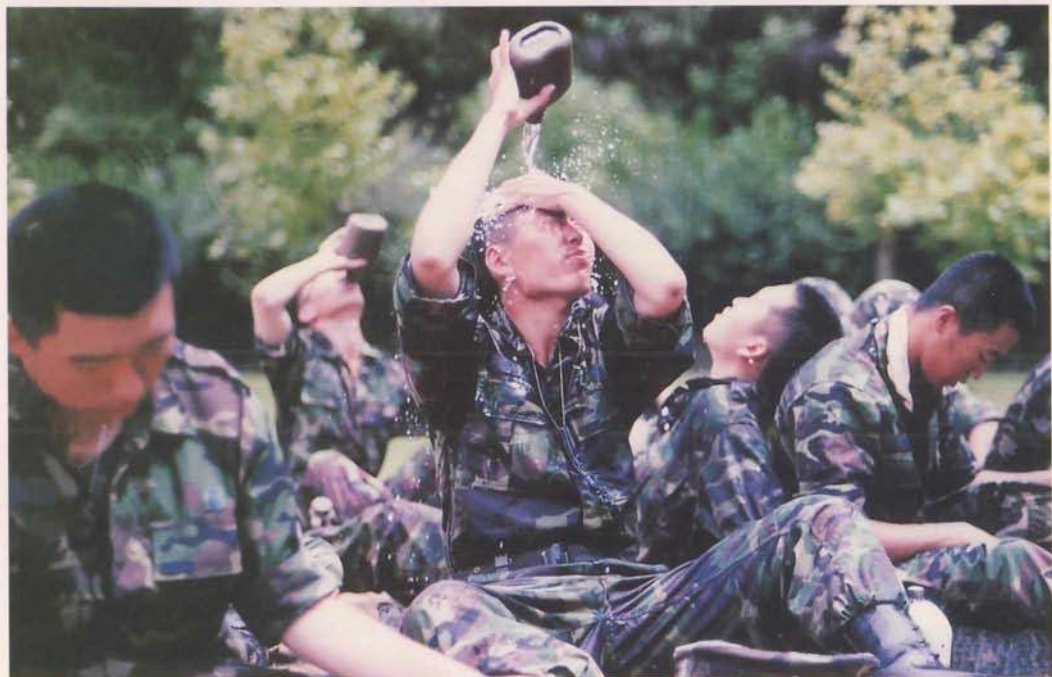
## 병행전 Parallel Warfare

병행전이란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전쟁 당사자간에 인명과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쟁을 최단시간 내에 종결시킬 수 있는 항공 우주력 위주의 전쟁 수행 방식으로, 각 전쟁 수준(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모든 표적군을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다. 병행전은 최근 미 공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이것이 결코 새로운 전쟁 형태는 아니다. 병행전 개념의 다수의 아이디어는 과거 두해, 미첼 등과 같은 항공 전략 사상가의 전략 폭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병행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걸프전으로, 다국적군은 개전 당일에 148개 표적을 공격하였으며 그중 50개 표적을 개전초 90분 동안에 공격하였다. 이를

2차 대전 기간중 美8공군이 124개 표적을 1년 동안(1942~1943) 공격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과 초정밀 무기의 발달에서 힘입은 것이다. 1995년 미공군 참모총장 로날드 포글만 장군은 병행전을 설명하면서 “미래전에서는 1시간에 1,500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병행전의 목표는 충격(Shock)을 통한





## 젊은 공군을 본다

젊은 간부들은 공군과 국가의 활력소이고,  
현재에 약동하는 맥박이자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며  
21세기 전략형 공군의 막중한 자산이다.

젊은 간부들이 발랄하지 못하거나,  
꿈에라도 무기력하거나,  
순습게 타협하는 것을 능사로 안다면,  
우리 공군의 앞날은 암울할 것이다.

그들의 발언이나 의견은  
다소간 미숙하더라도 진취적인 면을,  
얼마쯤 들떠 있더라도 적극적인 면을,  
가볍고 성급한 점이 있더라도 발랄한 면을  
더 사야 할 것이다.

젊은 간부들에게서는 그 발상이 엉뚱하더라도 신선한 것을,  
모가 나더라도 날카로운 것을,  
비타협적이라도 솔직한 것을,  
혹은 무모하더라도 참신한 패기와 용기를 더욱 사야 할 것이다.

우리 공군의 기성세대는 다음 시대를 감당할 젊은 성원들의  
특성과 특권들을 잘 북돋아 주고 길러 주고  
때로는 잘 이끌어 줌으로써,  
그 막중한 자산이 공군과 조국의 앞날에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유효하게 빛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성과가 어떤 것이나가 바로 50년을 넘어  
100년을 지향하는 한국 공군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 공군 창작전

● 전시내용

▶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프라모델

● 전시일정과 장소

▶ 대전지역

1998년 9월 9일 ~ 9월 14일 (한림갤러리)

▶ 서울지역(건군 50주년 3군 합동 전시회)

1998년 9월 15일 ~ 10월 3일 (전쟁기념관)

● 전시 문의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TEL. (02)506-6231~7

(042)552-6231~7

